

의사·약사까지 ... 개인회생 신청자 급증

주부·자영업자에서 전문직 등 고소득층도

광주·전남 작년 4599건... 전년보다 11% 늘어

주부 김모(32)씨는 혼수 비용과 결혼 후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를 사용해도 이를 갚지 못하고 연체하게 됐다. 또 다른 카드를 만들어 '물려막기'를 하며 버텼으나 한계에 이르러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하기로 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박모(42)씨는 대형화 추세에 따른 사업확장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으나 이후 병원 운영이 여의치 않아 채무를 졌다.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까지 이용해 급한 대로 갚고 있는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워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됐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불황의 여파로 주부나 자영업자는 물론 고소득의 대명사였던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다양한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4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10만5885건으로 전년도(9만368

건)보다 17.2% 증가했고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역시 같은 추세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건수는 총 9573건으로 2011년 6927건, 2012년 7647건에 이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행복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자수는 3269건으로 2011년 3552명에서 줄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2010년 236명에 불과했던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수는 459건으로 2012년 488명 보다 다소 줄었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

또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4599건으로 1년 전보다 11.4%나 늘었다.

이에 따라 빚에 허덕이는 개인을 구제하는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이 밖에 ▲행복기금도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계약직, 일용직, 시급직도 가능)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또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

산면책'을 통해 빚 면제를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량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신청인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회생과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비용과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과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각각 1.4%, 1.3% 올라

1월 광주와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4(2010년=100)로 전달대비 0.5%, 전년 같은 달 대비 1.3% 각각 상승했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월 중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8.33(2010년=100)으로 전달대비 0.5% 상승, 전년 같은 달 대비 1.4%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7.42(전도시평년: 107.61)로 전달대비 0.7%, 전년 같은 달 대비 1.0%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는 전달에 비해 딸기(9.9%), 호박(35.5%), 풋고추(14.1%), 토마토(11.8%), 오이(11.0%), 쨈(9.8%), 고등어(9.6%), 감자(9.5%) 등이 많이 상승했고 당근(-27.1%), 치약(-22.3%), 파(-19.2%), 배추(-16.1%), 돼지고기(-13.4%) 등이 내렸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전달대비 0.5%, 전년 같은 달 대비 0.8% 각각 상승했으며 서비스는 전달대비 0.6% 상승, 전년 같은 달 대비 1.9%

1월 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4(2010년=100)로 전달대비 0.5%, 전년 같은 달 대비 1.3%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08.63(전도시평년: 107.61)로 전달대비 0.6% 상승, 전년 같은 달 대비 1.1% 상승했다. 생활물가는 전달에 비해 딸기(59.3%), 호박(51.3%), 풋고추(28.3%), 토마토(15.0%), 굴(9.7%) 등이 상승했고 당근(-17.1%), 치약(-6.4%), 돼지고기(-5.4%), 파(-5.1%), 닭고기(-4.3%) 등이 내렸다.

품목성질별로 상품은 전달대비 0.6% 상승, 전년 같은 달 대비 0.8% 상승했고 서비스는 전달대비 0.4% 상승, 전년 같은 달 대비 1.7% 상승했다.

관련 1월 전국 물가지수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1.7% 상승했고 전달보다는 0.2% 상승해 전달과 같이 1% 초반대를 이어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거래량 증가

지난 달 광주·전남지역의 주식거래량과 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내놓은 '2014년 1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거래량은 3억 4361만주로 전월 2억4625만주에 비해 39.54%(9736만주)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2조2294억원으로 전월 5643억원에 비해 27.99%(4379억원) 증가했으며, 순매수량은 342만주로 전월 392만주보다 48만주 감소했다.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거래에서 차지한 거래량 비중은 2.47%로 전월 2.20%에 비해 0.27%, 거래대금은 1.59%로 전월 1.46%에 비해 0.13%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무인헬기 동원 시방역

전남농협(본부장 박중순)은 최근 시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방역작업 일환으로 4일 영암군 시종면 금지저수지 및 주변 농경지 일대에서 무인헬기 2대, 방제차량 2대 등을 투입해 긴급 공동방역을 실시했다.

(전남농협 제공)

'미국發 공포' 코스피 1890선 깨져

33.11P 하락... 한국 금융시장 불안

미국에서 불어온 환파에 국내 증시가 힘없이 주저앉았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새 6000억원대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코스피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만에 처음으로 1,890선 아래로 추락했다. 신종금 융우위기 불안과 중국 경기둔화에 이어 글로벌 경기회복을 이끌어 온 미국 경제마저 흔들리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4일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3.11포인트(1.72%) 내린 1,886.85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으로 1,89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28일(1,884.5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간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지난 1월 제조업지

수가 51.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56.0)를 크게 밑돈 것이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3대 지수는 일제히 2% 넘게 폭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2.08% 추락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각각 2.28%와 2.61%의 낙폭을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032억원을 팔아 이틀간 모두 1조



219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576억원과 2198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 중에는 연기금(1538억원), 투신(841억원)의 순매수 규모가 컸다.

업종 지수는 대부분 하락했다. 기계 업종(-3.45%)의 낙폭이 가장 컸고 증권(-2.88%), 운수항공(-2.80%), 통신업(-2.24%), 보험(-2.03%) 등이 뒤를 따랐다. 오른 업종은 비금속광물(0.02%)가 유일했다.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달보다 610.66포인트(4.18%) 폭락한 14,008.47, 토픽스지수는 57.05포인트(4.77%) 내린 1,139.27로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전일 종가보다 0.70원 내린 1,083.8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안심하고 닭·오리고기 익혀 드세요”

광주농협, 소비촉진 운동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이 근)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닭·오리 고기·계란 등의 소비를 촉진시켜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 근 본부장은 “익힌 닭·오리고기 섭취로 인한 감염사례는 없으며, AI바이러스는 75도 이상에서 5분간 가열하면 완전히 사멸된다”며 안심하고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랐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광주본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지나고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아 매주 화요일을 ‘닭·오리고기 먹는 날’로 정하고, 오리와 닭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소비를 촉진시켜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 근 본부장은 “익힌 닭·오리고기 섭취로 인한 감염사례는 없으며, AI바이러스는 75도 이상에서 5분간 가열하면 완전히 사멸된다”며 안심하고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랐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근 농협광주본부장이 지난 4일 구내식당에서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오리고기 시식을 하고 있다. (광주농협 제공)

2014 입학축하!

KAWAI 피아노 특별판매

엔화의 환율 하락에 연동한 최대 30% 할인된 슬직한 가격.
42년 역사의 (주)코스모스 악기가 공식 수입, 직접 공급하여 중간 마진이 없습니다.

모델명	GM-10	GE-20	GE-30	RX-2	RX-3	RX-5	RX-6	RX-7
기본 소문가	¥1,155,000	¥1,240,000	¥1,458,000	¥1,589,000	¥2,047,500	¥2,382,500	¥2,782,500	¥3,207,500
특별 할인가	10,500,000	11,000,000	12,000,000	13,000,000	14,900,000	18,400,000	21,600,000	25,900,000

가와이 그랜드 피아노의 특징

-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최대의 그랜드 피아노 공장인 일본 하마마츠 류우 공장에서 제작.
- 87년 역사, 3대에 걸친 타협 없는 철저한 품질관리.
- 세계최초의 "카본 ABS 내장 건반 액션" 이 적용된 "밀레니엄 III" 건반사용

한정수량 품절주의
파격할인 29,000,000원
14,900,000원

COSMOSMUSIC.COM

광주지점 062)515-8844

KBS1TV "하림마당" 생방송출연 (해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결혼 정보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성사율 호남1위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역교동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초혼		추천회원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세무사, 연구원 29~39세 새우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70m 히너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